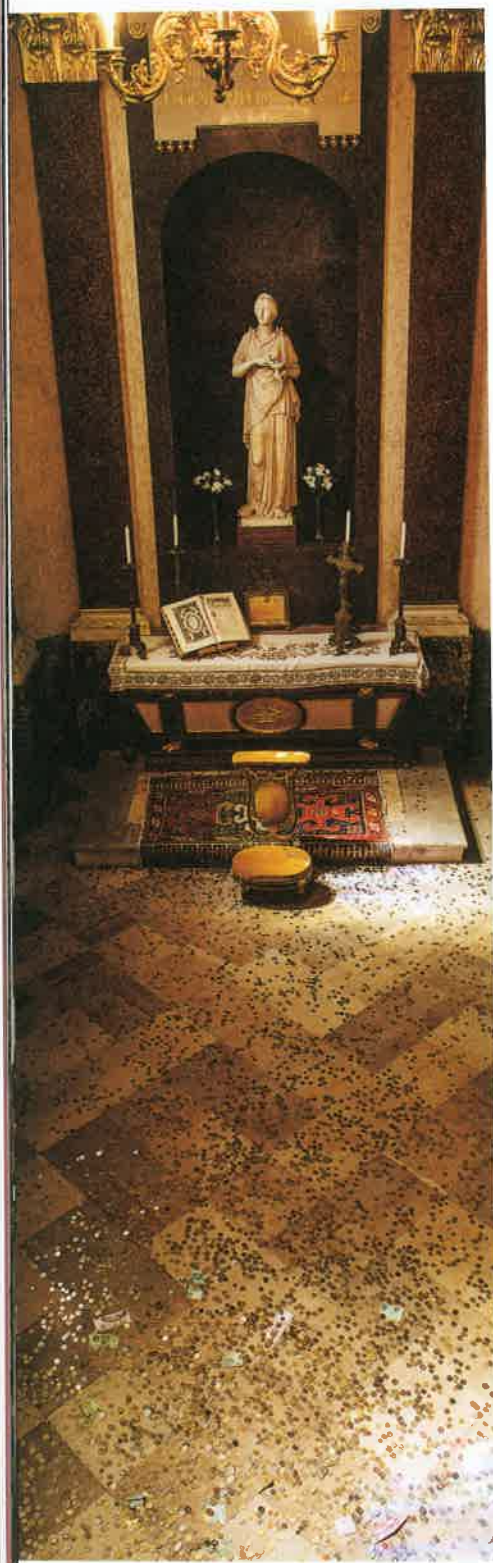


헝가리 소도시 추억 여행

지난해 다녀온 헝가리의 작은 도시
케스트헤이와 헤렌드를 떠올리며 헝가리인의
정에 다시 매료되었다.

국립 헝가리 도서관, 부다페스트, 헝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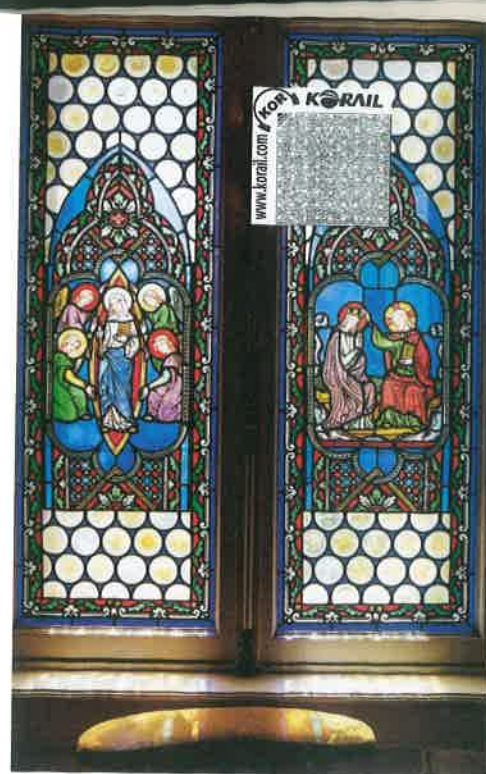
책 수만 권이 쌓인 헝가리 케스트헤이 지역의 헬리콘 도서관이 아름답다. 옛 책에 산지식이 전해진다. 한 해를 책에 비유한다면 365페이지의 책. 우리는 매일 한 장씩 저마다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12월 31일이 돼서야 한 권을 마무리한다. '2019년'이라는 제목의 책은 어떨까. 5월 챗터 마지막 부분은 애석하게도 한국인과 헝가리인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문장으로 가득하다.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일어난 사고는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다. 아픈 기억이라고 물을 수만 있겠는가. 지난 5월 헝가리 다뉴브강에서는 유람선에서 생명을 잃은 한국인 스물다섯 명의 넋을 기리는 선상 추모식이 열렸다. 사고가 일어난 당시에도 헝가리 시민 수백 명은 침몰 현장이 내려다보이는 머르기트 다리 위에 모여 우리 노래 '아리랑'을 불렀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아도 하나가 되어 울었다. 그 마음이 가슴에 남아 지난해 다녀온 헝가리 여행기가 적힌 나의 책을 다시 펼쳐 보았다. 이번엔 떠나는 추억 여행지는 헝가리 사람의 고운 심성을 닮은 소도시다.

헝가리 귀족의 인정이 깃든 케스트헤이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남서쪽으로 20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작은 도시 케스트헤이는 헝가리의 바다라고 불리는 벨러톤 호수 북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유서 깊



은 지역이다. 온천 도시로 유명한 헤비즈를 곁에 두어 휴양 도시로 자리 잡았는데, 지역이 발달한 데는 페슈테티치 가문의 공이 컸다. 크리스토프 페슈테티치가 1700년대 중반 이곳에 정착하면서 그의 집안은 대대로 병원을 짓고, 유럽 최초 농업 대학 게오르기콘 등을 건립하며 도시를 부흥했다. 10만 헥타르(3억 250만 평) 부지에 세운 하얀 자태가 고고한 페슈테티치 궁전은 1745년 짓기 시작해 100여 년에 걸쳐 완성한 가문의 보금자리다. 지금은 그 시절 헝가리 귀족의 생활을 엿보는 박물관이 되었다. 기도를 올리던 예배당부터 손님과 차담을 나누거나 가족이 쉬던 살롱, 그림을 전시한 갤러리, 연회 홀 등 방마다 고급스럽게 장식한 가구 등 인테리어가 황홀하다. 그중 헬리콘 도서관은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유일한 귀족 도서관으로 의미가 깊다. 처음 크리스토프가 16~17세기 고서를 수집하면서 서재로 활용했으나 그의 아들 팔, 팔의 아들 죄르지에게 전해지면서 규모가 커졌다. 전문 사서를 두어 책을 관리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역사, 정치, 법학, 문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장르의 장서가 5만 권에 달했다. 나이가 죄르지는 서재를 게오르기콘 학생과 선생에게 개방하고 사용 규칙을 정해 도서관처럼 운영했다. 가진 이가 당연히 사회와 나누고자 한 인정이 개인 공간을 공공에 열게 했다. 천장고 2층 높이의 커다란 도서관은 오롯이 책으로 가득하다. 책장이 삼면을 둘러싸 방에 들어서는 이가 스스로 숨죽이고,



가진 이의
인정이
개인 서재를
도서관으로
열게 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기쁨이 쌓이는
공간이다.

INFORMATION

헝가리는 기차로 여행하기 좋은 나라다. IC(Inter City) 열차는 헝가리의 주요 도시를 잇는다. 부다페스트 델리역(남역)에서 IC열차를 타고 케스트헤이역까지 3시간 정도 걸린다. 문의 www.mavcsoport.hu



도자기를
빛는 장인의
손길이 아이를
어루만지듯
섬세하다.
장인의 열정이
최고 자리를
지킨다.



발뒤꿈치를 들게 한다. 여전히 이곳은 허가받은 연구자만 책을 열람할 수 있다. 하늘도 페슈테티치 일가의 인심에 감동했는지 전쟁의 참사로부터 지켜 주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기품이 쌓이는 공간이다.

장인의 열정이 숨 쉬는 헤렌드

케스트헤이에서 한 시간 정도 거리, 벨리툰 호수 북쪽에 위치한 헤렌드는 우리에게 이름이 친숙한 도시다. 1826년 지역 이름을 따서 설립한 수제 도자기 공방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면서다. 당시 헤렌드는 독일, 영국보다 도자기 기술이 100년 정도 뒤쳐져 있었지만 중국풍 도자기 양식에 독자적 개성을 불어넣어 기반을 단단히 다져 갔다. 노력이 결실을 거둔 건 25년 만이었다. 1851년 영국 런던 만국박람회에 출품한 나비와 꽃무늬를 새긴 중국풍 테이블웨어가 그랑프리상을 수상했다. 그 작품이 마음에 든 빅토리아 여왕은 테이블웨어를 구매했고, 단숨에 헤렌드는 세계적 도자기 기업 반열에 올랐다. 이후 헤렌드는 세계 왕실과 저명인사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헤렌드에서 도자기 빛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그 비결을 저절로 알게 된다. 헤렌드는 모듈링부터 초벌하고 굽고 채색하기까지 과정을 눈으로 보고 쉽게 이해



하도록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순도 200퍼센트 핸드메이드에 놀라고, 오차를 줄이고자 체계화한 과정에 다시 한번 놀란다. 제품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거치는 장인만 여럿. 각 작업 공정마다 최고 전문가가 자기를, 작품을 만든다. 한 공정을 마칠 때마다 꼼꼼한 품질 검수는 필수다. 말 공예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드만 18개. 부위별로 제작한 물드에 고운 입자의 최고급 원료를 부어 틀을 잡고, 이어 붙인다. 장인의 손길이 아이를 어루만지듯이 섬세하다. 채색 작업에 사용하는 천연 안료는 1000가지가 넘는다. 덧칠에 덧칠을 거듭하는 인내의 시간 끝에서 생명이 꿈틀댄다. 유한의 가치가 무한의 가치를 빛낸다. 모든 공정을 장인이 수작업으로 하기에 헤렌드에서 만드는 도자기는 어느 것 하나 같지 않고 모두 특별하다. 헤렌드의 가치는 전통을 보존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190년이 넘도록 선대의 기술을 계승해 오면서 정교함을 더하고, 매해 새로운 제품과 디자인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박람회에서 선보인다. 수많은 장인의 열정과 헤렌드의 정신이 최고 자리를 지킨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의 진중한 표정과 순수한 미소가 여전히 기억에 남는다. 어찌면 헝가리인의 따스한 정은 선대부터 전해 내려온 정신이 아닐까. 추억 여행이지만 다시금 마음이 따스해진다. 상처가 아물어 단단해지는 날이 오길, 편히 여행할 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을 가을 하늘에 실어 보낸다. 



ATTRACTIONS

헝가리의 온천

헤비즈 스파

온천은 2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헝가리의 고유한 문화다. 수많은 온천 중 벨러톤 호수 서쪽 지역인 헤비즈의 온천은 특별하다. 푸른 숲이 호수를 감싸 안아 차가운 바람을 막아 주고, 지열이 물을 따뜻하게 데워 온도가 연중 23도 이상으로 겨울에도 따스하다. 규모 면에서도 약 4만 헥타르(1만 3000여 평), 수심 38미터로 유럽에서 가장 크고 세계에서는 두 번째다. 문의 www.spaheviz.h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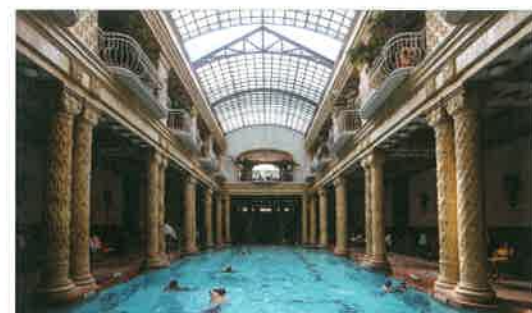
세체니 온천

네오 바로크 양식으로 지은 건물이 멋스럽다. 1913년에 문을 연 이곳은 1927년 확장해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약 1000미터 아래에 있는 74도가 넘는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 올려 사용하는데, 칼슘과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을 함유해 류머티즘에 좋다.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스파를 즐기고 아로마 마사지를 받으며 가족이나 연인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추천한다. 문의 www.szechenyibath.hu



겔레르트 온천

부다페스트 겔레르트 언덕 아래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다. 13세기 온천이 있던 자리에 1918년 호텔을 신축하며 확장했다. 아르누보 양식의 건물 내부는 천장이 높아 개방감이 좋고,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해 고급스럽다. 온천욕을 하면서 모자이크 타일과 장식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다양한 온도의 온천탕이 있으며, 야외 수영장에서는 파도 풀을 운영해 즐길거리가 풍부하다. 문의 www.gellertbath.com



DIRECTIONS

헝가리 가는 방법



LOT 폴란드 항공

헝가리로 향하는 하늘길이 편리해졌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천국제공항과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프란츠 리스트 국제공항을 직항으로 연결하는 LOT 폴란드 항공은 코로나19 여파에도 주 4회 운항한다. 월요일에는 인천과 부다페스트 사이를 직항하고, 화·목·토요일에는 폴란드 바르샤바를 경유한다. 특히 인천-바르샤바, 인천-부다페스트 직항 노선에는 한국어가 유창한 승무원이 탑승해 의사소통이 수월하다. 한국인 입맛에 맞춘 기내식,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컵라면과 스낵은 비행시간 내내 심심한 입을 달랜다. 현재 헝가리는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일반 여행객은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나, 기업 출장자는 관련 서류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준비하면 자가 격리 기간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90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타얼라이언스 항공 회원사인 LOT 폴란드 항공은 유럽 항공사 중 평균 기체 연식이 젊은 항공사 중 하나다. 국제선은 최첨단 항공기인 보잉 788, 789 드림라이너를 투입한다. 세계가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지금 기내를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으며, 모든 항공권에 무제한 날짜 변경을 허용해 고객이 유연하게 여행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다. 문의 www.lot.com/kr